

사진기자의 단상

할머니도 손자도 “주사는 무서워”



아침·저녁으로 창들로 파고드는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무더어진 햇살도 가을이 깊어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찬바람이 숲속 불어오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감기’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독감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3일 광주시 남구 백운동 주민건강센터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진행됐습니다.

한창 예방접종이 진행되던 센터에 갑자기 ‘왕~’하는 울음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진 속 꼬마 녀석입니다. 뭐가 그리도 서러운지 눈물도 그렇그럽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꼬마 녀석은 예방접종 대상자인 할머니와 손을 꼭 잡고 센터를 찾았습니다. 의젓하게 순서를 기다리던 꼬마 녀석은 할머니의 차례가 되자 벌안간 울음을 터뜨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맞는 것도 아닌데도 꼬마 녀석은 눈물까지 뚝뚝 흘려가며 대상통곡입니다. 소중한 할머니가 아픈 게 싫은 건지, 아니면 자신도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꼬마 녀석 때문에 센터는 한동안 웃음 바다가 됐습니다.

에나 지금이나 주사 맞는 일은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땐 왜 그리 예방접종 날도 많았지... 복도에 길게 늘어선 예방접종을 기다리던 순간은 영원같이 길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때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제왔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해 독감 예방 접종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난감한 질문

한 꼬마 녀석이 유치원에서 숫자 세는 법을 배웠다. 유치원에 다녀온 꼬마가 아빠에게 물어보았다.

“아빠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는 뭐예요?”

질문을 받은 아빠는 최대한 간단하게 무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이제 알아들었으리니 하고 있는데 꼬마가 다시 질문했다.

“아빠 그럼 무한대 바로 앞의 숫자는 뭐예요?”

▲호떡 장사와 노신사

한 여자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호떡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와서는 물었다.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1천원이라는 대답에 노신사가 지갑에서 1천원짜리 지폐 한장을 꺼내 놓고는 그냥 가는 것이었다.

“아니 호떡 가져 가셔야죠!”

그러자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아뇨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날 이후 노신사는 매일 호떡 아줌마를 찾아와 1천원을 놓고 그냥 갔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어김없이 노신사가 찾아와 1천원을 놓고 갔다.

어느날 아줌마가 수줍은 표정으로 노신사를 따라와 말했다.

“저기... 아저씨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곱슬머리의 비애

타고난 곱슬머리의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하루는 머리 때문에 화가나 한바탕 신경질을 부렸다. 그러자 어린 조카가 다가와 말했다.

“이모 한네. 이모 머리는 정말 아름다워. 꼭 흐르는 강물같아.”

그 얘기를 들은 여자는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그런데 그 순간 조카가 다가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여기 급류가 있네.”

▲지하철에서 생긴 일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올라타면서 물었다.

“학생 이 지하철 기점으로 가는 거 맞나?”

“네? 아닌데요. 이거 전기로 가는 건데요.”

그러자 지하철에 올랐던 할아버지가 황급히 내리는 것이었다. 학생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그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길음, 길음역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어느 축구팀의 감독은 아이가 여덟 명이나 되었다. 감독이 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인터뷰를 하게 됐다. 한 기자가 가족에 대해 궁금해 하며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으시게 됐어요?”

그러자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다.

“있잖아요. 경기가 있는 전날 밤에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연설의 고수

연설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연설을 마친 후 한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다.

“도대체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니까?”

그러자 남자가 미소를 띄며 말했다.

“간단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듣기를 그만두기 전에 연설을 끝내는 것입니다.”

▲위기의 부부

권태기를 느낀 남편이 궁리 끝에 잠시 아내와 떨어져 있기로 했다.

“저기 여보, 나 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내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아내는 한마디 덧붙였다.

“여보, 혹시 일정이 빨리 끝나더라도 일찍 돌아오지 않는다고 약속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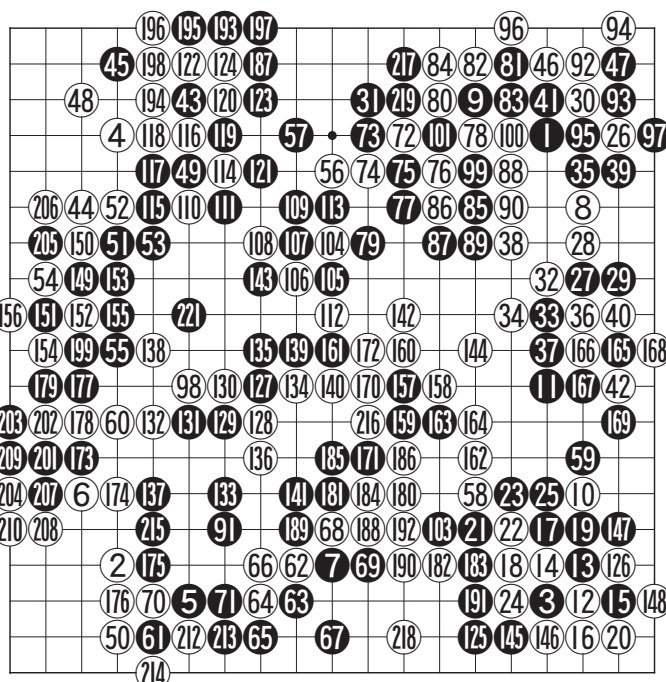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아마최강부 결승

심재욱 행운의 승리

개인전 준결승 총보(1~221)

白 신계성 6단 黑 심재욱 6단



이 지방 아마바둑계를 양분해오고 있는 심재욱 6단과 신계성 6단은 벌써 20여년 짝 응쟁호투를 벌이고 있다. 나이는 심재욱 6단이 신계성 6단 보다 8년 선배이나 최근 성적은 보면 심 6단이 더 좋은 편이다. 심 6단은 특히 전국대회에서도 자주 입상권에 들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성적이 좋아지는’ 이상현상을 보일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바둑은 라이벌전담게 초반부터 기세다툼이 치열했다. 신계성 6단이 우편에서 백 28로 치받는 변칙수를 구사해오자 실리파인 심재욱 6단이 역시 29로 내려서는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초반에는 주도권을 잡았던 심 6단이 집으로 쫓기게 된 것은 상반에서 백이 78까지 버텼을 때 흑 79로 80으로 넘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 110으로 끊었을 때 부터의 치열한 공방전은 두사람의 전투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며 백 128로 불인 이후 중앙이 잘 타게 되어서는 백의 승리가 유력했다. 그러나 승운이 따르지 않았던 신계성 6단은 182의 손해수와 최후에 좌편에서 흑이199로 단수했을 때 백 200으로 있는 패착을 두어 아깝게도 우승컵을 심재욱 6단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심 6단에게 행운이 따라온 한판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목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리빙 센스

살림 재할용하기

- ◇떡다 남은 맥주
 - ▲면이 술을 묻혀 화초 있을 뒀어주면 윤기가 난다.
 - ▲검은 옷이 탈색됐을 때 마지막 헹굼물에 맥주를 섞어서 사용하면 색이 한층 선명해진다.
 - ▲튀김할 때 튀김옷에 불대신 맥주를 섞으면 바삭한 튀김이 된다.
 - ▲삼겹살을 맥주에 담궜다가 먹으면 누린내 없이 깔끔한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
- ◇감자 껍질
 - ▲생선을 튀기고 난 기름에 감자 껍질을 넣고 튀기면 생선냄새가 제거된다.
 - ▲겨울을 감자껍질로 문지른 다음 마른 수건으로 닦아 내면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 ▲감자 껍질을 유리잔 안에 넣고 물을 부은 뒤, 손으로 입구를 막고 상하로 흔들어 주면 윤이 난다. 얼음이 심할 때 감자껍질을 그대로 며칠동안 놔두면 유리잔이 깨끗해진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4일(음 9월 16일 丁亥)

子	36년생 재도전의 꿈이 실현될 징조가 보인다. 48년생 새로운 인연은 허황된 상처만 남긴다. 60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후회는 없으리라. 72년생 새로운 삶의 안정된 기쁨을 이룬다. 84년생 생물을 즐기고 주변이 산만하다. 행운의 숫자: 03, 12
丑	37년생 영전 승진하는 격이나 이성문제에 신중하라. 49년생 재물의 손실을 조심하라. 61년생 정신이 없는 하루니 신경을 쓰라. 73년생 바깥엔 손을 놓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좋으리라. 85년생 자신의 일로 쌓아놓은 정성이 무너질라. 행운의 숫자: 14, 11
寅	38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고 도처에 은인이라. 50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배우자의 건강을 챙겨보라. 62년생 주변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생길 수도 있다. 74년생 말씨마다 절을 마다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05, 10
卯	39년생 시비가 따르고 신체적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51년생 특별한 건강에 유념하라. 63년생 한 생의 물고기가 해업되는 모습으로 하루가 평안하다. 75년생 재미있게 놀라 그물에 걸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6, 09
辰	40년생 경쟁자가 없다고 잠만 채는 하지마라. 52년생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64년생 자신 있게 활동하라. 76년생 생소할 길을 만나듯하니 살피서 행동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01, 02
巳	41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경사가 생길 수 있다. 53년생 순풍에 항해하는 형상이다. 65년생 주변의 협조가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고 있으라. 77년생 풍파를 만난 일일편주니 마음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11, 13
午	42년생 상당한 고역이 따를 수가 있다. 54년생 서투른 잘못과 뒷사람의 불만이 있으리라. 66년생 직업과 남남사이로 불만과 불평이 나타날 수도 있다. 78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길라. 행운의 숫자: 09, 16
未	43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애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보라. 55년생 안 밖으로 삭막하고 기력이 상실된 건강에 유의하라. 67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79년생 새로운 일 생길 듯하다. 행운의 숫자: 20, 25
申	44년생 금전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 있다. 56년생 부부간 언쟁 빈번하고 큰 소리가 있으니 현명하게 생활하라. 68년생 형제 주변의 도움이 있고 학문의 발전이 있다. 80년생 큰 성공의 기쁨이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14, 21
酉	45년생 좋은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다. 57년생 일고일락이 있으나 나쁘지는 않다. 69년생 무리하지만 있으면 어부지기로 한다. 81년생 새로운 일이나 금전거래는 신중하고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행운의 숫자: 22, 23
戌	46년생 보이지 않는 도색을 하고 있으나 힘지는 않다. 58년생 의외의 협조가 있고 식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70년생 예정된 권력이 있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82년생 모든 일에 불관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07, 08
亥	47년생 의심스러운 굴욕을 지나는 형상이니 살펴봐야 하리라. 59년생 부부의 냉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 71년생 불연이든 불의를 기우려 마음을 달랠 수도 있다. 83년생 우연한 이상의 만남도 꿈꾸어 보라. 행운의 숫자: 17, 18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66>

No way. 말도 안돼요.

A: Do you think you'll buy that one?
 B: No way! That's the ugliest picture I've ever seen!
 A: It's not that bad
 B: Are you kidding? I could do better than that.

A: 저것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B: 말도 안돼요! 저것은 제가 여태껏 봤던 작품 중 가장 엉망이라고요.
 A: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요.
 B: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다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 ugly : 추한, 밍스인
 * 여태껏 태어난 아이 중 가장 예쁜 아기이군요.
 =That's the prettiest baby ever born.
 * 저 분은 제가 여태껏 만났던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분이군요.
 =That's the nicest lady I've ever met.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66>

恐れ入ります. 송구스럽습니다.

A: ~恐(おそ)れ入ります。こちらの書類(しよるい)をご確認(かくにん)ください。
 B: はい。こちらを確認すればいいですね。

A: 송구스럽습니다.(죄송합니다). 이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B: 네. 이쪽 서류를 확인하면 되는 거군요.

恐れ入る란 '죄송하다' '송구스럽다'라는 뜻이다.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며, 일상 회화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바꾸어 달라고 할 때 すみません 보다는恐れ入ります를 사용해 보자.

* 書類(しよるい): 서류
 * 確認(かくにん): 확인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43>

你和谁去机场? 당신과 누가 공항에 갔습니까?

A: 她们从哪里来?
 ta men cong nali lai
 61년 중국에서 왔어

B: 她们从中间来。
 ta men cong zhongguo lai
 61년 중국에서 왔어

A: 你和谁去机场?
 ni he shei qu jichang
 너와 누가 공항에 갔어?

B: 我和妈妈去机场。
 wo he mama qu jichang
 我和妈妈去机场

A: 그녀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B: 그녀들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A: 당신과 누가 공항에 갔습니까?
 B: 나와 엄마가 공항에 갔습니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 383-1605

한자 이야기 <883>

好古破産 (호고파산) 좋을 호, 옛 고, 깨뜨릴 파, 날을 산

호고파산(好古破産)은 옛 것을 너무 좋아하면 재산을 다 날린다는 뜻으로, 그다지 필요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집착하면 결국 신세를 망친다는 말이다.

고물(古物)을 좋아하는 장자(長者)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가 옛 것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가산(家産)을 기울여서라도 사들이곤 하였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깨어진 표주박 하나를 들고 와서, “이건 옛날 허유(許由)라는 은사가 귀를 씻던 표주박입니다.”라고 하면, 그는 백금(百金)을 주고 사 들였다. 또 어떤 사람이 해진 자리 하나를 메고 와서, “이것은 옛날 공자(孔子)께서 행단(杏壇)에서 제자들에게 강연하던 자리입니다.”라고 하면, 그는 그것을 백금을 주고 사 들였다. 어떤 사람이 대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옛날 비장방(費長房)이 갈피(葛屐)에서 던진 지팡이입니다.”라고 하면, 또 백금을 주고 사 들였다. 그러는 동안 그의 가산은 다 탕진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들인 고물(古物)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 어느 날 왼손에는 표주박을 들고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해진 자리를 거드랑이에 낀 채 집들밭이 걸음으로 동네를 걸어가니, 사람들이 비웃으며 손가락질하였다고 한다. (洪萬宗의 ‘莫業志譜’)

<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